



南美市場動向과 進출전략

金 命 煥

(味元通商輸出一課長)

필자는 약 40일 동안 韓國 貿易協會 주관 1977년도 제 1차 民間貿易使節團의 일원으로 南美 안데스산맥의 西部國家중 칠리·파라과이·볼리비아·베네주엘라 4개 국의 市場조사차 출장을 다녀왔다.

동 사절단은 味元通商·大宇·國際·鮮京·天一社·南洋漁網등 10개 회사의 실무책임자들과 商工部·貿協에서 1명씩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貿協, 현지公館 등 政府관계부처의 사전준비와 支援아래 商品展示會를 통한 相談, 市場조사開拓, 현지業界 및 政府 당국과의 親善도모를 目的으로 果敢되었었다.

우리會社의 展示品目은 구루민산소다, 라이신 P.S.등의 石油化學제품, 포도당, 전분, 통조림, 人造皮革, FRP제품, Activated Carbon, Anthracite, Guitar등 輸出가능 品目に 주력했고 다른 會社들은 纖維제품, 신발類, 電子제품, 비료, 金屬洋食器, 魚網등이었다.

이번 南美 4개국 訪問을 통해 느낀 그곳 市場 및 우리의 進出展望에 대하여 皮相的이나 마 감히 펜을 들어 愚見을 펴까한다.

國際概況과 製品의 市場性

國別概況

1. 칠리(Republic of Chile)

人口 1千萬, 面積은 740,000km², 首都 Santiago는 320萬名, 1人當 GNP는 \$900정도이며 國土의 폭에 비하여 南北의 길이가 유난히도 긴 나라이다.

1973年 9月 現軍事政權이 집권한 후 親西方政策을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1962年 國交를 맺은 후 현재는 韓國을 이나라 經濟開發의 「모토」로 삼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대한 印象은 아주 좋게 가지고 있으며, 우리 使節

團이 訪問 하였을 때에도 言論界에서 매일 取材, 報道할 정도로 큰 關心을 보였다.

이 나라는 鑛物 및 林山資源이 풍부하여 銅(세계 4위)과 鐵鑛石이 總輸出額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食品, 시멘트, 纖維, 철강, 石油, 精製, 製糖, 타이어工業이 있으며, 그水準은 브라질, 알젠티나 다음으로 南美에서는 제 3위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產業은 鑛山業이며 이를 相對로 한 車輛, rail, 장화 鑛山服등도 이 나라의 有望한 輸出品目이 되고 있다.

輸出額은 \$21억(76年度)로서 위에 말한 鑛山物, 魚粉, 종이원료 등이 주요品目이며, 鑛山資源은 대부분 美·日·獨에 輸出되고 있다.

輸入額은 \$81억(76年度)으로서 機械, 自動車, 化學製品 등 原料, 中間材, 資本材를 주로 輸入하고 있으며, 主된 輸入國은 美·西獨·알젠티나이다.

우리나라와의 交易量은 1975年度 韓國의 輸出이 \$18만 9천(이중 米元 調味料 輸出額도 相當額을 차지하고 있음), 輸入은 \$570萬(주로 銅이었으며, 77年の 우리나라 輸出目標은 \$100萬이나, 현지公館에서는 \$300萬 達成을 樂觀하고 있다.

현 政權은 점차적으로 안정되어 감에 따라 經濟開發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어 自由開放經濟體制를 指向하여 關稅率도 계속 引下하고 있고 최근 Andes 經濟共同體에서 탈퇴하여 1977年 4월 3日 改正된 “外國人 投資法”에 의하면 外國資本에 대하여 철저히 門戶를 開放하여 100% 外國資本會社 설립도 허용하고 果實送金도 自由롭게 하게 하고 있다.

인플레이션도 많이 安定되어 가는 추세여서 73年—75年間은 年 500%에서 年 300%였으나 76年은 175%였고 今年 目標은 85%인데 거의 成功的으로 達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나라 貿易業界의 수준은 1950년대말 또는 1960년대초의 우리나라와 아주 흡사하다고 하며 靑後의 몇 안되는 巨商앞에 수많은 오파商이 활동하고 있으며 外換事情이 좋지 않음으로 輸入信用狀 開設時에는 반드시 美國이나 西歐銀行의 確認을 받은 confirmed LC라야 안심하고 去來할 수 있다고 한다.

月銀行利率이 9%나 되며 外換이 不足하고 輸入信用狀開設時 高額の 積立金문제로 LC Base 去來보다는 D/A, D/P의 外上去來를 원하는 경향이 많으나 LC Base 去來를 하기도 한다.

2. 파라과이(Republic of Paraguay)

面積은 406,000km²이나, 人口는 서울의 $\frac{1}{3}$ 밖에 안되는 267萬, 首都 아순시온은 人口 55萬名의 小國이며 1인당 國民所得은 \$356(75年)이라고 한다.

현 軍事政權은 1954年 執權한 이래 政治的·經濟的 安定을 누리고 있으며(20年전이나 지금이나 換率의 變動이 거의 없음), 우리나라와는 1962年 國交樹立한 후 현재 韓國大使館이 있으며 南美의 어느나라보다도 僑民問題로 神經을 쓰고 있는 것 같다. (한국대사관 集計에 依하면 僑胞數는 5천~6천명임)

이 나라의 產業이라고는 農業과 牧畜業(소의 수가 人口의 3배이며 최고기 한근에 ₩400 정도임)·뿐이며 工業은 全無하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닐 정도임으로 일체의 工產品은 알젠티나, 브라질, 美, 獨, 日에서 輸入하여 오고 있으며 성냥휴지까지도 外來品을 사용하고 있다.

요즈음 이 나라도 世界的 추세인 經濟開發에 눈을 돌려, 美, 日, 대만, 獨, 스페인 등에서 借款등 經濟援助를 얻고자 하고 있으며, 韓國에서도 “시멘트”工場을 現地에 建設하려

고 하였으나 파라과이政府에서 支拂保證을 안 해 주어 無爲로 끝났다고 한다.

輸出은 \$1억 7천 6백만(原綿, 木材, 皮革, 肉類等 農産物이 90%), 輸入은 \$2억 1천3백만(品目: 연료, 농기구, 모타, 차량, 電氣用品) 主 交易相對國은 알젠티, 브라질, 獨, 英美, 日이다.

우리나라와의 貿易關係는 韓國의 輸出이 76年度에 \$137,300(전자시계, 타이어, 샤프), 輸入이 \$500,000(식물성 탄닌엑스)이었으나 今年 3월말 현재 韓國의 對파라과이 輸出은 뿐이었다. 그러나 實際로는 移民집의 형태로 상당량의 纖維製品, 日用品, 調味料等이 輸出 소개되어 品質에 대하여는 굉장한 好評을 받고 있으나 구매력이 너무 약해 正式貿易 창구를 通한다고 하여도 少量注文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나라의 貿易形態는 좀 특수하여 正常貿易, 通過貿易(Transit), 密貿易의 3형태가 있으며, 韓國의 오림포스電子時計회사의 電子時計 등을 免稅로 輸入하여 와서 周邊國에 輸出하는 Transit貿易을 시도하였으나 브라질의 輸入抑制措置 강화와 알젠티의 軍事革命으로 인한 여건변동으로 時宜에 맞지 않아 成功하지 못한 事例가 있고 密貿易이 盛하여 계삼貿易量의 2배이상이나 된다고 하며, 輸入規制가 심한 주위의 브라질, 알젠티 등으로 洋酬, 담배, 기타 消費品을 密輸出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首都 아순시온에는 外來品이 싼값으로 販賣하고 있어 南美의 홍콩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을 정도다.

현재 韓國公館에서는 YACRETA렘 건설, 기타의 建築공사의 入札준비를 추진중이며, 南美, 유일의 政府과견 建設官이 이 곳에 常住하고 있는 것은 어떤 意味가 있지 아니한가 생각되기도 한다.

이 나라의 큰 去來는 10여명의 巨商이나 軍部の 實力者를 끼지 않으면 힘들고, 人口가 적고 구매력이 약해 工場하나 세우기가 힘들 정도라고 하지만, 食糧이 武器化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볼때에는 넓은 農土를 開放하고 있고, 우리눈等 地下資源도 풍부하므로 長期의 眼目에서 國家的인 次元의 資源 輸入市場으로서 우선 研究를 해볼만한 곳이 아니겠느냐는 생각도 든다.

3. 볼리비아(Republic of Bolivia)

이곳 역시 人口는 서울보다도 적은 563萬名 面積은 1백만km², 首都인 해발 4천m가까이 자리잡은 “라 파즈”, 國際空港에 내리면 산소 부족으로 호흡곤란과 頭痛을 맛보는 高山의 나라라는 것이 第一印象의이었다. 76년도의 1인당 國民所得은 약 \$600.

1971년 8월 現軍事政權 수립후 政治的 안정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政權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5年 國交수립한후 현재 公館이 常設돼 있으며 한국 교포는 500~600名 이라고 한다.

이 나라의 産業은 주식, 안티몬, 石油等の 鑛業(광산은 “필립브러더스”等 外國人이 主로 장악하고 있으며 日本도 이에 한몫 끼여 채굴된 鑛物을 自國으로 輸出하고 있다고 한다)과 설탕 면화, 肉類等の 農牧業이 중심이나 食品 섬유 등 消費材 중심의 工業도 인근諸國에 비하여 發達되어 있으며 특히 1976년부터 제1차 5個年經濟開發計劃에 착수하여 이 기간중 \$36억을 投入할 計劃이며, “라파즈”市內 곳곳에 빌딩建設붐이 한창 일어나 마치 1960년대 中半期의 우리나라를 연상하게 할 정도로 都市에 活氣가 넘쳐 보인다.

인프리는 年 10% 정도로 비교적 物價가 안

정되어 있고 換率도 72년부터 동일水準을 유지하고 있으며 外換保有高도 \$2억으로 外換事情이 좋은 편이며 外換管理法이 없어 外貨送金 및 去來가 자유로운 편이다. 輸入信用狀開設도 容易하여 輸入認證이 필요없고, 積立金도 평균 25%라서 信用狀開設이 쉬워 심지어는 小賣商도 外國貿易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76년도 輸出額은 \$6억(世界 3位の 주석, 鉛, 안티몬, 銅, 石油, 설탕), 輸入은 \$5억 5천 8백만(鑛山機械裝備, 自動車等 주로 資本材 中間材 및 電子製品)이며 금년도 韓國의 輸出目標 \$300萬의 達成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으며, 이곳에 進出한 韓國業體는 大字, 동산타이어, 三星, 강원산업 雙龍等으로서 각기 상당한 實績을 올리고 있다.

4. 베네주엘라(Republic of Venezuela)

人口 1200萬, 面積 912,000km², 首都 카라카스(人口 : 218萬), 1人當 國民所得은 \$2천(74年度)의 比較的 富國이다.

南美 유일의 平和的 政權交替를 하고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와는 1965年 國交수립한 후 현재 大使館 과 KOTRA가 상주하고 있다.

石油가 이 나라의 가장 큰 收入源(世界 3位の 石油輸出國)으로서 이 나라 輸出額의 90% 이상을 占하고 있으며, 石油輸出로 얻은 풍부한 外貨로 工產品을 大量輸入한 까닭에 工業이 落後한 편이므로 현재 產業의 多角化와 石油化學等의 輸入代替產業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75년도의 輸出額은 \$111억으로서 이중 石油輸出額이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輸入은 \$65억(品目 : 原資材, 機械, 建設材가 80% 이상이며 食品等 消費材가 17%임)

1976년도 韓國의 輸出額은 \$830萬(品目은

타이어, 어망, 전자제품, 의류)이었으나 금년도 目標은 \$1500萬으로서 대체로 現地에 支社를 가지고 있는 三星, 雙龍, 錦湖에 할당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目標達成이 가능시 되는 會社도 있으나, 아직은 定着年輪이 짧은 관계로 기대에 부응하는 去來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어떤 會社는 支社설치이후 1년반동안 去來의 實現보다는 상당한 費用을 들여가면서 우선 現地의 情報 把握 정리에 더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한다. 商工部에 등록을 한 이 地域의 韓國業體數는 11個나 되어 계속 增加추세에 있다.

이번 日程에는 빠져 있었으나, 南美의 宗主權을 다루고 있는 브라질과 알제틴 두 나라에 대해서는 여행중에 듣고 寄着시 보고 느낀대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5. 브라질(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우리나라의 40배나 되는 광활한 國土(850만 km²)와 1억 1천만의 人口(面積은 세계 7위, 人口는 5위). 풍부한 自然資源을 바탕으로 1970~1974년 國民總生産의 平均成長은 10.7%에 達해 브라질의 國民總生産규모는 自由世界 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단 小麥과 石油生産이 부족한 것이 이 나라의 취약점이지만 現在 많은 海底油田을 發見하여 生産을 始作하고 있다.

넓은 農土를 가진 이 나라는 小麥을 제외한 대부분의 食糧을 自給하고 있으며 農牧場數는 全國에 490萬이 되나 輸牧業 확대에 특별계획을 실시하여 근래엔 農業機械 農業用航空機, 비료, 配合飼料의 사용확대등 現代農業技術의 투입으로 耕作方法의 革新을 急진진시키고 있으며 牧畜은 牛肉外에 사료 증산과 발맞추어 養鷄 및 養豚사업이 크게 擴大되어 특히 1970년도 鷄肉生産은 1965년도 水準보다 3배가 넘게 增加하였다고 한다.

鑛業: 이 나라는 가장 풍부한 鑛物資源國의 하나이며 鐵鑛石의 매장량은 소련과 世界 1위를 다투고 있으며, 망강은 西半球중 最大, 토리움은 世界생산량의 33%나 되며, 기타 石炭 磷鑛石등이 대표적인 鑛物이다.

工業은 이 나라GDP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으며(75年) 成長率이 높은 製造部門은 플라스틱輸送機械, 電氣, 通信機器, 非鐵金屬, 化學, 飲料, 고무工業이며, 현재 國土開發計劃을 추진중이며, 80년대 中半期에는 先進工業國으로 成長할 것으로 專門家들은 보고 있다.

貿易(75年)은 輸出 \$86억(커피, 억커, 피설, 糖철광, 석, 大豆등의 一次產品의 全體의 40% 機械등의 工業製品이 6.7% 차지). 輸入 \$135억(機械, 裝備, 燃料가 全體의 60%)이며 주요交易國은 美西獨·日本, 소련등이다.

政府의 적극적 政策과 民間企業의 열의로 1960年~1975年까지 輸出은 거의 6배 伸張하였으나 輸入은 이를 上廻, 매년 貿易赤字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石油波動을 계기로 國民이 완도 가열하여 成長의 低下, 外貨不足, 物價昂등등 經濟的 동요가 심하여지자 74년부터 폭적인 輸入抑制政策을 취하고 있으나 輸出品製造用 機械設備등에 대하여는 制限을 철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59年 國交를 맺은 후 1960년대 시작한 移民의 수요가 현재 1만명이 넘고 있으며(3萬名으 推算하고 있는 見解도 있음) 75년 타이어, 튜브, 調味料, 합성수지제품, 어망등 \$600萬을 輸出하였으나 브라질政府의 輸入抑制政策으로 76年은 극히 低調하였으나 다시 活路를 모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요컨대, 브라질은 世界 제 5위의 國土, 제 7위의 人口, 막대한 地下資源, 可耕農地의 10%에 불과한 既耕地만으로도 世界 제 1위의 커피, 原糖, 만조카(우리나라의 감자나 고

구마 비슷한 것). 제 3위의 옥수수, 大豆, 제 4위의 코코아, 제 5위의 綿花等 農産物을 生産하고 있는 거대한 資源市場이고, 1인당 國民生産所得은 世界 제26위로 처져 있으나, 萬難을 무릅쓰고 추진중인 브라질國家開發과 더불어 주변국가에 미치고 있는 브라질市場의 影響圈이 가일층 확대될 것은 물론 世界的 經濟國으로 發展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經濟大國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6. 아르헨티나(Argentine Republic)

面積은 韓半島의 10여배나 되나 人口는 우리나라 보다 적은 2,500萬, 1人當 GNP는 \$1360 이 나라는 한 마디로 農牧의 나라이다.

칠레의 산티에고에서 아르헨티나의 首都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가는 途中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西部 國境인 안데스山脈만 지나면 丘陵하나 찾아볼 수 없는 끝없는 平原의 연속일 뿐이다.

1차 大戰중 農産品の 輸出로 一躍 南美域內의 先進國으로 등장하여 ABC (Argentine Brazil, Chile) 3國의 하나로 손꼽히다가, 그 후 經濟는 長期에 걸쳐 停滯하였으나 農産物加工을 중심으로한 工業이 점차 발전되고 있으며 근래는 특히 基礎金屬, 化學品, 고무, 플라스틱 및 機械 部門이 눈부신 發展을 하고 있다고 한다.

75년도 輸出은 \$30억으로서 이중 農牧產品이 85%를 占有, 輸入은 \$40억으로서 化學製品, 紙製品, 鐵鋼製品, 機械類, 電氣製品이 總輸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主交易國은 美·西獨·日·브라질·소련등이다. 不要不急品에 대한 輸入禁止措置는 최근 전면 自由화된바 있으나 70년부터 關稅를 대폭 인상하는 등 강력히 輸入을 規制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1962年 國交수립한 후 75年

輸出 \$450萬, 輸入 \$360이며 교민은 3천~5천명선이라고 한다.

우리 製品의 市場性

1. 調味料(구루타민산 소다)

칠레에는 世界的인 Soup maker Nestles, KNORR 以外에도 中小食品加工業者가(調味料을 쓰는) 10개쯤 되며, 통조림製造業者가 20여개, 首都 산티아고에 中國人 食堂이 20개 된다고 하며 年間 消費量을 600%~1000%으로 보고 있으며, 파라과이에는 移民집에 섞여 온 우리 “신선료”로 “味元”을 볼 수 있었으나 年間消費量은 수십톤을 결코 넘을 수 없으며, 볼리비아에는 Nestles등의 soup工場이 있긴 하나 단지 輸入한 諸原料를 包裝만 하는 정도임으로 調味料를 직접 구입하여 쓴다 하더라도 아주 少量에 그친다는 것이 擔當販買責任者의 얘기였다. 한편 베네주엘라에도 KNORR 와 HEINZ등의 Soup maker가 있어 年 700%~1000%의 消費가 있고 브라질이 2000%, 아르헨티나가 600%으로 보고 있다.

또 방문국중의 어디를 가나 日製, 페루產, Ajinomoto, 대만製 때로는 美製 調味料 小包裝物을 슈퍼마켓 또는 큰 市場에서 간간히 찾아 볼 수 있었으며 그곳의 소매 價格은 대체로 우리價格의 5~10배나 되었었다.

南美人도 食生活은 西歐人和 거의 같으므로 調味料를 家庭에서 먹는 일은 없으므로 이러한 小包裝物은 대체로 東洋人 및 東洋系食堂用으로 팔리고 있지만 東洋人의 점증(한국 移民만 3~4萬名) 日本業者의 需要創造 活動等으로 南美의 調味料需要는 일정한 한도內에서는 점차 늘것으로 보인다.

南美에 대한 主供給國家는 日本(80~90%占有) 韓國, 대만등이나 “페루”의 Ajinomoto가

周邊國家에 진출을 강화하고 있고, 또 브라질의 年產 8천~1만%規模의 Ajinomoto 合作工作이 稼動된다고 함으로 앞으로 이곳 市場 진출에는 域内外의 差別關稅制(Chile와 같이 調味料에 대한 差別關稅가 없는 國家도 있으나 베네주엘라는 域內產 14%, 域外產 40%로 差別하고 있음)와 함께 여러가지 制約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브라질의 Ajinomoto 工場은 生産量중 2천여톤만 國內 供給하고 나머지는 주변국가는 물론 美國에까지 輸出할 計劃이라는 얘기가 있다.)

2. 라 이 신

칠레, 파라과이등은 食用탄을 비교적 많이 飼育하고 있으나 라이신의 使用은 거의 안하고 있으며 世界的 牧畜國인 알젠틴과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에서는 相當量을 消費하여 南美全體의 最高 年消費量이 2천%을 넘은 때도 있었다.

라이신도 調味料와 마찬가지로 日本人이 市場開拓까지 主導的역할을 하였으므로, 南美市場은 완전히 日本人이 석권하고 있으며 더구나 멕시코의 協和醱酵工場(年產 3천%규모)의 建設로 日本은 中南美市場의 確保에는 더욱 유리한 입장이 되고 있다.

얼마전까지 우리는 中南美市場에는 거의 關心을 갖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市場多邊化방침에 따라 이곳 市場 開拓을 위해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라이신 代替物의 하나인 Fish meal의 世界的 輸出國인 페루와 칠레大豆의 世界輸出 제 2 위인 브라질이 모두 이 地域國家들이다.

3. 포도당 전분 통조립類

이 地域은 農産物이 풍부한 지역임으로 칠레 등지에는 Glucose Cornstarch 生産業體가

있어 輸入은 안하고 있다고 하며, 자세한 調査는 못 해보았으나 어떠한 展示國에서도 觀心을 표시하는 業者는 없었다.

통조림은 칠레에는 20餘 生産業體가 있다고 하며 쿨, 아바르니, 고등어통조림은 隣近國家에 輸出도 하고 있으나 高級品은 스페인, 美國等地에서 輸入도 하고 있다고 한다.

4. 其他

P.S P.G, 빙초산, Ethyl Acetate等 石油化學製品: 칠레에는 소규모기는 하나 P.S 美國合作工場(月 500%生産規模)이 있으며, 대부분의 石油化學製品은 美·獨·伊 등에서 輸入하고 있어 우리製品은 價格面 등에서 競爭이 어려운 狀態로 보였다.

合成皮革: 칠레에는 天然皮革의 生産이 많이 되고 있으나 合成皮革의 長點으로 同國內에 生産工場도 있으며, 自國製品의 品質劣等과 生産量의 부족으로 현재 일부는 外國에서 輸入하고 있는 실정이라 우리製品에 대하여 상당한 觀心을 표시하여 왔다.

guitar는 모든 國家에서 生産은 하고 있으나 品質이 떨어져서 스페인, 日本, 대만, 브라질 등에서 수입을 하고 있으며, 우리가 展示한 見品에 대하여 아주 好評을 했으며, 競爭價格의 提示와 꾸준한 忍耐만 있으면 少量輸出은 가능하리라 본다.

Activated Carton과 Anthracite은 비교적 生活水準이 높고 水質이 좋지 아니한 베네주엘라는 多少 市場性이 있어 보였으며, FRP製品中 Boat와 Helmet(鑛山用)은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볼리비아에서 關心을 表하는 業者가 있으나 어느 정도의 可能性이 있을지는 더욱 면밀한 市場調査가 있어야 하겠다.

다른 會社의 경우를 보면 T.V.等 電子製品과 一部 國家에서는 纖維類(칠레 파라과이에

서는 대단한 關心을 끌었지만, 알젠티, 브라질, 볼리비아 등은 섬유工業이 發達된 편이라 輸入規制를 強化하고 있다)가 대단한 人氣品目이었다.

우리의 進出展望 및 方案

走馬看山格으로 그것도 一部國家에 對하여만 短期間의 調査였으므로 正確度나 깊이가 缺如되어 있어 斷定的인 判斷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南美國家의 産業 및 貿易構造(主로 一次產品輸出 機械裝備等 資本中間材輸入이 總輸入의 大部分을 차지함), 一般消費材의 輸入抑制政策, 外換事情, 消費能力(대체로 國民所得이 낮고, 貧富의 격차가 너무 심하여 一般國民의 20~30%만이 構買能力을 가진者로 보고 있는 나라가 많음) 決濟方式(主로 延拂輸入), 注文의 少規模性等에 비추어 볼 때에 現在의 우리그룹製品의 輸出은 쉽지 않아 보인다.

既輸出品인 調味料도 先發企業인 日本의 Ajinomoto社가 現地の 豊富한 原料를 토대로 페루와 브라질에 南美全體의 需要를 充足시킬 수 있는 調味料工場을 建設하여 輸送上의 利點, 域內特惠關稅의 優待를 받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의 輸出競爭力의 弱화가 우려되며 라이신도 日本 Kyowa의 mexico 工場建設로 同一한 問題에 부딪힐 것 같다.

石油化學製品은 베네주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등의 石油生産으로 現地에 石油化學工業이 發展되어 가고 있으며, 또 그들의 主交易國이 美, EC, 日本 등이므로 우리製品의 輸出은 지금으로서는 容易하지 않을 것 같다.

現在 中南美市場을 國家에서 積極的으로 開拓하려는 理由는 풍부한 資源(地下資源, 農畜產資源, 林山資源)과 적지 않은 商品需要(人

口 3億으로서 北美보다 많으며 年 輸入額이 \$600억임), 그리고 中南美의 많은 國家가 우리보다 工業이 뒤떨어져 있고, 現在 政治的으로 安定되어 감에 따라 모든 國家가 經濟開發에 着手하고 있고, 또 그들 자신이 從來의 몇몇의 先進國 一邊度의 貿易에서 脫皮하려고 하는 點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와의 經濟發展程度의 差異에서 오는 商品輸出, Plant輸出, 合作投資, 建設工事 및 資源確保를 目的으로 長期的 觀點에서 꼭 確保해야 할 有望한 큰 市場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現在 開拓되지 아니한 잠재적 可能性이 가장 크고 中東 景氣 이후에 등장할 有力한 市場은 中南美이다).

中南美市場進出을 強化하기 爲하여 우리가 取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면 ① 適當한 國家에 駐在員을 파견하여 中南美諸國家에 대한 既存去來를 유지, 擴張, 質을 높이고, 市場現況 研究把握, 資料蒐集을 하여 新規去來, 投資를 爲한 努力을 하게 하는 方法.

현재 商工部에 登錄된 우리나라의 南美地畝 海外支社는 50個에 達하고 있으며 이들은 大部分이 당장의 收益보다는 앞으로의 利益을 위하여 活躍하고 있는 것이다.

參考로 日本人 商社의 南美에서의 活動을 보면, 南美의 어느나라를 가도 日製機械, 自動車, 各種家電製品, 時計를 볼 수 있으며, 調味料, 심지어는 “기꼬망”간장까지 눈에 필 정도로, 깊숙히 침투하여 있다. 이들은 오늘날의 成果를 爲하여 15년 내지 20여년전(韓民動亂이 끝나 多少 資本蓄積을 한 1955年서 1960年), 日本資源貧國의 工業國家이라는 點을 감안하여 우선 資源確保를 위하여 南美 各國에 支店, 事務所를 設置하였으며, 이들 中에는 아직도 自己名義의 直去來는 하지 않고 主로 現地の 情報를 蒐集하여 本社에 報告하고

輸出入斡旋만 하는 商社도 있었고 特히 이들 海外支店의 任務中의 하나로서 눈을 끄는 것은 本國과 現地間의 思考方式과 實情의 差異에서 오는 異見調整이 었다.

中南美는 資源은 豊富하나 技術과 資本이 不足하며 外國業者의 投資를 환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貿易, 技術, 法律, 經濟專門家들로 하여금 事前에 市場, 投資環境等を 철저히 調査시킨 후 現地に 專門要員을 파견하여 合作投資, 技術投資의 可能性을 眞摯하게 타진할 必要性은 수년후의 우리 企業의 發展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여기에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多年間의 經驗이 많은 敎訓이 되리라고 믿고 있다.

② 現地に 駐在員을 파견하는 方法이 現在로서는 利益에 비해 投資額이 너무 많을 경우 美國支社에서 中南美의 去來를 擔當研究하게 하는 方法. 美國은 中南美와의 交通通信便이 좋고 南美에 대한 資料求得이 韓國에서 보다 容易하고 中南美諸國의 商人이 뉴욕에 자주 오고 있으며 美國은 中南美諸國의 가장 큰 交易相對國일뿐만 아니라 政治的으로도 진밀하기 때문이다.

③ 또는 本社에 中南美 擔當者를 두어 少量 注文이라도 보다 誠實히 應해주고, 市場을 꾸준히 研究, 開拓하게 하면서 中南美에서 열리는 商品展示會等에(年40회나 있음) 參加하고 때로는 現地出張을 시킴으로서 業者를 直接 방문 접촉케하여 去來促進을 시키는 方法.

④ 이와 아울러 現在의 우리製品中에서 調味料, 라이신은 물론 市場性 있는 品目은 最善을 다하여 開拓하도록 해야 할 줄로 안다.

이는 지금 당장 輸出增大를 爲한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企業이 中南美에 보다 적극적으로 進出하려고 할 때에 발판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